

큰스님 수행한담

“오계와 십선계는

법천스님 (건봉사 한주)



- 1916년 경북 통화 생
1928년 고성 건봉사 불교전문강원에서 사교과 수료.
1930년 설악산 오세암에서 탄공스님을 은사로 사미계.
1934년 양주 봉선사강원에서 대교과 수료.
1940년 고성 건봉사에서 대련스님을 계사로 대승계.
1945년 통국대학교전문부 문학과 2년 수료.
1981년 9월~82년 5월 단양구인사 불교전문강원 강사.
現 강원도 고성 건봉사에 주석.

끊임없이 착한마음 키우고 잘못된 생각 지우려는 노력이 아늑다라삼막삼보리 이루게 해요

야 합니다. 걸만 중이지 뭐가 뭔지도 모르고, 글을 배우야 오계 쉽게 배우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이제 나이먹어 기억이 흐릿하지만 그때 인공스님은 항상 오계의 가르침을 생활속에서 실천해야 한다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오계를 지녀 실천하는 것이 불자로서의 가장 근본이라고 항상 알려주셨지요.
우리들이 부처님께 귀의하여 불자가 되고 부처님의 교법을 믿는 것도 불교의 진리가 가장 완전하고 영원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 귀의

한 불자가 되고 행해야 할 덕목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 특히 간과할 수 없는 것은 계를 지키는 일입니다. 계행은 선근을 기르고 수행의 목적을 성취하는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러한 계행 가운데 불자들이 기본적으로 지녀야 할 계가 바로 오계와 십선계입니다.
함부로 살생하지 말고, 남의 것을 훔치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거짓말을 하지 말고, 술을 함부로 마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는 소위 사부대중이라 하여 출가 수행자인 비구 비구니, 재가불자인 우바

새 우버이가 함께 지켜야 할 계행이지요. 십선계는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망어, 불양살, 불악구, 불기어, 불탐욕, 불진에, 불사견의 10가지로 몸으로 행하고 입으로 행하고 마음으로 행하는, 신구의 삼업의 공덕을 성취하기 위한 계행입니다. 또 이 십선계는 대승계의 기본인 동시에 재가 수행자의 청규로서 불교의 기본적인 생활원리입니다. 이 오계와 십선계를 항상 유념하면서 생활한다면 이 세상은 너무나 살기 좋은 곳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잘 살기를 원하고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도 잘 살게 되고 행복하게 되는 근본 원인인 부처님의 진리를 믿고 실천할 줄 모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인간 아닌 다른 짐승의 능력을 믿으려 하고 돈이나 권세가 많아 행복할 줄 착각합니다. 현대인들의 불행은 여기에 있습니다. 믿을 것을 믿지 않고 믿어서는 안될 것을 믿는 데서 우리의 불행과 고통이 시작됩니다. 또

다시 푸는 경서

42장경

(2) (佛言)出家沙門者 斷欲去愛 (불언)출가사문자 단욕거애 識自心源 達佛深理 悟無爲法 識자심원 달불심리 오무위법 內無所得 外無所求 心不繫道 亦不結 內무소득 외무소구 심불계도 역불결業 業 無念無作 非修非證 無념무작 비수비증 무념무작 비수비증 不歷諸位 而自崇嚴 名之爲道 不歷諸位 而自崇嚴 名之爲道 불력제위 이자승회 명지위도

하등위십 신삼구사의삼 身三者 殺盜淫 身삼자 살도음 四者 兩舌惡口 妄言綺語 四者 兩舌惡口 妄言綺語 구사자 양설악구망언기어 意三者 嫉恚癡 意三者 嫉恚癡 의삼자 질예치 如是十事 不眞聖道 名十惡行 如是十事 不眞聖道 名十惡行 여사십사 불순성도 명십악행 是惡若止 名十善行耳 是惡若止 名十善行耳 시악약지 명십선행이

‘출가사문이란 욕망·애욕을 끊고 제 마음자리의 근원을 알고 부처님 가르침의 깊은 도리에 통달하여 무위법을 깨닫는 것이다. 안으로 달리 얻을 바 없고 밖으로 달리 구할 것이 없으며 마음은 도에 얽매이지도 않고 또한 업을 짓지도 업에 매이지도 않으니 생각 생각마다에 함도 없고 지음도 없어 닦는다. 깨달아 얻는다도 없다. 그러기에 모든 과위를 밟는다 할 것

“허물 있는데 스스로 뉘우치지 않으면 그 죄과는 어김없이 제몸에 돌아오니”

도 없이 절로 가장 높으니 이를 이름 하여 ‘도’라 한다.

이 십선행이 된다.’

(3) (佛言)人有來過 而不自悔 頓息其心 (불언)인유중과 이불자회 돈식기심 罪來赴身 如水歸海 漸成深廣 罪來赴身 如水歸海 漸成深廣 죄래부신 여수귀해 점성심판 若人有過 自解知非 改惡行善 若人有過 自解知非 改惡行善 악인유과 자해지비 개악행선 罪自消滅 如病得汗 漸有痊損耳 罪自消滅 如病得汗 漸有痊損耳 죄자소멸 여병득한 점유전 손이

‘사람이 많은 허물이 있는데도 스스로 뉘우치지 않고 마음으로 아무렇지 않게 여긴다면 그 죄과는 어김없이 제몸에 돌아오는 것이니 이는 마치 강물이 바다에 모여 점점 더 깊고 넓어지는 것과 같다. 만약 사람이 허물이 있더라도 스스로 잘못됨을 알아 악행을 고치고 선을 행하면 죄업은 스스로 소멸하게 되니 이는 마치 병에 걸려 땀을 흘리고 나니 점차로 병이 낫게 되는 것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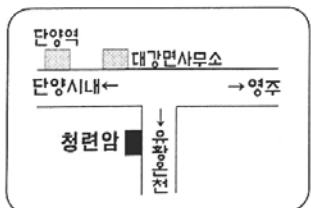
龍眼

지장보살·후불탱화 조성 100일 기도 입재 및 부처님진신사리 친견대법회

- 설악산 청련암 복원불사를 위한 -

- 일시 : 무인년 9월 18일 (양력 11월 6일) 오전 10시
장소 : 청련암 대도당
초청법사 : 아공스님 (영주 도술사 주지)

설악산 청련암은 고려 공민왕 계축년 22년에 나옹선사께서 창건하신 고찰입니다. 하지만 전란으로 가람이 소실되고 현재 퇴락해 가는 요사채, 법당, 삼성각만이 있습니다. 특히 삼성각은 단양팔경중 4경에 속하는 사인암 기암 절벽사이에 안주해 있어 기도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청련암은 온국민의 정신적 귀의처로서 개산된지 1천 3백여년의 성상이 됐습니다. 본사에서는 이러한 역사와 전통을 되새겨 11월 6일 제방의 큰스님들과 사부대중을 모시고 정성을 다하여 복원불사를 위한 첫발걸음을 내디디려 합니다. 부처님진신사리 친견법회, 100일기도 그리고 지장보살 조성을 위한 법회를 봉행하오니 많은 동참 바라옵고 선근공덕 지으시길 바랍니다.



문의전화
충북 단양군 대강면 사인암리 산27번지
청련암 중무소 (0444) 422-1330
복원불사 동참
농협 : 335-12-124793 (임덕찬)
우체국 : 300210-0095196 (최진경)

대한불교 조계종 청련암 주지 종덕 합장

국내 최초 고려대장경 해설서 “고려대장경해제”

팔만사천여 경판 천오백십사종의 경전으로 구성된 팔만대장경을 보기 쉽고 찾기 쉽게 하나하나 풀어 정리하였습니다.



정가 150,000원 (송6권, 우송부 포함)

- 고려대장경 해제는
고려대장경에 포함된 1,845종의 경전을 해설하였습니다.
고려대장경에는 1,514종의 경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제에서는 대장경에 입정된 1,514종의 경전과 소장된 331종, 모두 1,845종의 경전을 해설하였습니다.
주제 분류에 따라 경전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각 경전마다 주제를 주고, 주제를 몇 개의 범주로 묶어서 경전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총 6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제 3권, 목록 2권, 색인 1권, 총 6권 1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고려대장경을 해설한 불교전문 사전입니다.
고려대장경의 판각이 완료된 지 올해로 727년이 되었지만, 중요한 소의경전들에 대한 해설서만 있었을 뿐, 대장경에 입정된 경전 전체를 해설한 책은 없었습니다.
대장경의 경전 하나 하나가 모두 부처님 말씀이기 때문에 어느 경전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경전을 한글 음운으로 배열하여 보다 편리합니다.
1,845개의 표제어로 구성된 일종의 고려대장경 해설 사전입니다.
보고자 하는 경전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한글 음운으로 배열하였습니다.

오는 10월 21일 출간 될 고려대장경 해제는 1,000질 한정 판매합니다. 이로 인해 부득이 전화예약을 통한 주문판매만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려대장경연구소

(예약 및 구입문의) 고려대장경연구소 (02)797-0585
온라인 번호 : 상업은행 169-07-096250 (예금주 : 고려대장경연구소 출판부)